

|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  |
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|
|  | <b>보 도 자 료</b>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수도권매립지 종료   |   |  |
|   | 배포일자   | 2022년 4월 4일(월)<br>총 2매 |   | <br>환경특별시 인천 |  |
| 담당 부서   | 해양친수과  |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친수공간시설팀장 권순광 ☎458-7156</li> <li>• 담당자 신우창 ☎458-7157</li> </ul> |   |  |
| 사진(이미지)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 | 참고자료                  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
| 보도시점  |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  |

소래 해넘이 전망대 개방 ...  
 바다전망대, 해안광장 갖춰  
 - 소래 해넘이다리 인근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준공 -

인천 소래포구와 해오름공원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바다를 더 가까이 즐길 수 있는 바다 전망대가 들어섰다.

인천광역시는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‘소래 해넘이 전망대 조성공사’의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.

이날 행사에는 인천광역시장, 시의회의장, 지역 국회의원, 남동구청장, 지역주민들이 참석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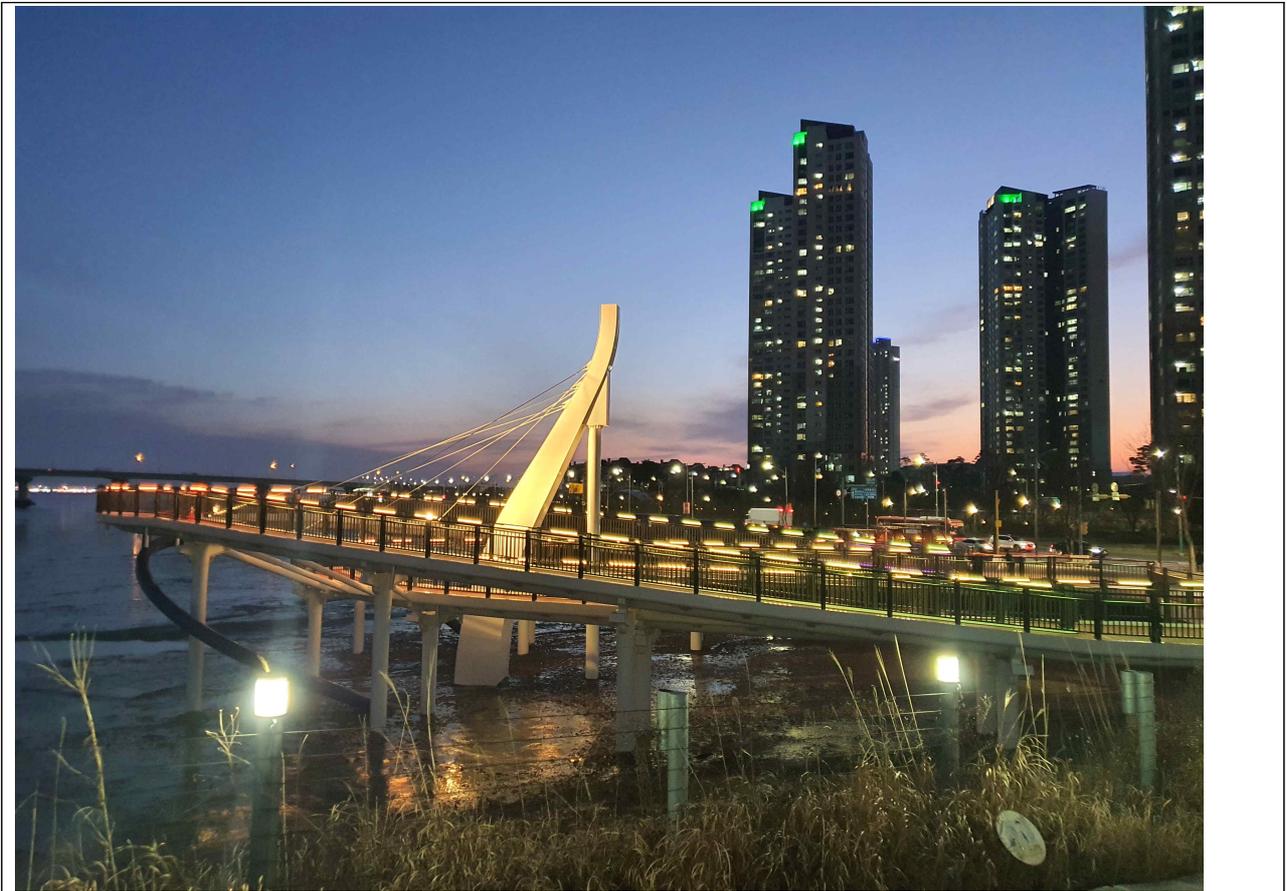
약 3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폭 46m, 길이 84m 규모로 조성됐으며, 상부는 목재데크와 강화유리로, 하부는 강관구조물로 소래 갯벌포구의 어선을 상징화했다.

또한, 전망대에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LED 경관조명을

설치해 어두운 밤에도 은은하게 빛을 내도록 했고, CCTV를 설치해 방문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했다.

박남춘 인천시장은 “잘 조성된 해양친수공간은 ‘쉽’이 있는 삶을 가능케 하고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생각한다”며 “언제 어디서든 바다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말했다.

<사진> 소래 해넘이 전망대 조성사진

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0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 
'인천시 인터넷방송'(<http://tv.incheon.go.kr/>) '포토인천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